

시간여행축제 '이야기가 있는 집 투어' 참여자 모집

군산시, 미공개 일본식 가옥들 직접 찾아 시간여행마을 일원에 얽혀 있는 역사 다양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 선착순 접수·홈페이지 통해 신청

군산시는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열리는 제6회 시간여행축제 기간 동안 1930년대 일본식 가옥을 직접 볼 수 있는 '이야기가 있는 집 투어' 프로그램을 참여자를 오는 13일까지 모집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진행되는 '이야기가 있는 집 투어'는 평소 공개되지 않았던 1930년대의 일본식 가옥들을 직접 들어가 보고, 문화탐방지도사로부터 시간여행마을 일원에 얽혀 있는 역사와 그 밖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고품격 해설 프로그램이다

이번 '이야기가 있는 집 투어'에서는 지난날 새롭게 등록문화재로 등록된 구조선운송주식회사 사택과 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청 관사가 시간여행축제 기간 동안 특별 개방돼 내부까지 들어가 볼 수 있다

구조선운송주식회사 사택은 개인주택으로 지어졌으나 이후 유통업 관련 회사에 매입돼 활용되면서 우리나라 물류·유통업의 대표 기업과 관련된 역사를 갖고 있는 중규모의 주택건축물로 세부적인 표현 기법이 잘 남아 있는 건축물이다

구전주지방법원 군산지청 관사는 공공기관 관사로 지어진 건물임에도 일본식과 서양식의 화려한 세부 표현 기법이 잘 남아 있으며, 일제강점기 군산 원도심의 공간 변화를 잘 보여 주고 있어 투어 참여자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구군산지청 관사는 이번 시간여행축제 기간 동안 일반인들에게 최초로 공개되며 투어코스는 호남관세 박물관(구 군산세관)을 시작으로 이담미술관, 구전주지방법원 군산지청 관사, 신흥중앙본식가옥, 구조선운송주식회사 사택, 초원사건관으로 이어진다

현재 참여자를 선착순으로 접수받고 있으며, 프로그램 참여희망자는 시간여행축제 홈페이지(<http://festival.gunsan.go.kr>)를 통해 신청하면 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관광진흥과(☎454-3333)로 문의하면 된다

김영섭 관광진흥과장은 "이야기가 있는 집 투어는 시간여행축제에서 만나볼 수 있는 이색적인 해설 프로그램으로, 프로그램에 많은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올해로 6회째를 맞이하는 군산 시간여행축제는 1930년대의 군산의 일상 모습을 다양한 콘셉트로 구성한 퍼레이드를 시작으로 축제의 막을 올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진행되는 '이야기가 있는 집 투어'는 평소 공개되지 않았던 1930년대의 일본식 가옥들을 직접 들어가 보고, 문화탐방지도사로부터 시간여행마을 일원에 얽혀 있는 역사와 그 밖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고품격 해설 프로그램이다

릴 예정이며, 개막식에서는 다채로운 공연과 퍼포먼스가 펼쳐진다

/군산=김정훈기자

군산시, 원스톱 민원 행정 서비스 시행

사망자 재산 한 번에 조회·신청 '안심상속 원스톱' 적극 추진

군산시는 최근 민선 7기 김일준 군산시장의 공약사항인 원스톱 민원행정 적극 추진을 실현하기 위해 사망자의 재산을 통합으로 조회할 수 있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사망신고 시 전국 시·군·읍면 등에서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국세·지방세, 국민·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연금 등 재산을 한 번에 조회·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신청자격은 제1·2·3순위 상속인, 대습상속인 순으로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해야 하며, 1·2순위 상속인은 온라인(정부 24, <http://www.gov.kr>)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자동차·건축물정보는 접수 당일, 지방세·토지정보는 신청 후 7일 이내, 국세·금융·국민연금 등은 20일 이내에 조회 결과를 확인할 수 있고, 직접 방문 수령, 우편, 문자 전송 등 신청자 본인이 정보제공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이외에 9월 7일부터는 건설일용근로자가 건설근로자 공개 가입 현장에서 근무하면 일한 일수만큼 공제금을 적립했다가 청구할 수 있는 '건설 근로자 퇴직공제금 가입 여부'와 건축물 소유 여부도 확인할 수 있다

/군산=김정훈기자

익산국토청, 공사관리 평가제 도입

익산국토청이 자체 발주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공사관리 평가제'를 도입해 건설현장의 품질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지난 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청장 김철홍)에 따르면 안전 관리와 품질 향상에 대한 현장 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공사관리 평가제'를 실시한다

이번에 도입하는 '공사관리 평가제'는 익산국토청에서 발주한 현장에 대해 시공·품질·안전관리 등 공사와 직접 관련된 사항과 예산절감, 계약 관리 등 공사 추진을 위한 지원사항 등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다

평가대상은 현재 익산국토청에서 발주해 진행중인 65건의 공사(도로 하천) 중 공정률이 낮거나 준공을 앞둔 29개 현장을 제외한 36개의 현장이다

9월부터 11월까지 평가를 실시해 12월에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평가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평가위원은 청 직원 2명과 외부 전문가 3명으로 구성한다

평가내용은 현장평가와 서면평가로 나뉘는데, 현장평가는 시공, 품질, 안전, 환경관리 등 5개 분야 33개 세부 평가항목이고, 서면평가는 산업재해, 임금체불, 예산절감 등 7개 분야 7개 세부 평가항목으로 이뤄져 있다

평가결과 우수현장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최우수 현장은 연말에 표창을 수여하고,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다른 현장에서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전파할 계획이다

/익산=우병희 기자

익산시, 전 직원 친절교육

익산시가 오는 11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친절 교육에 나선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민선7기 취임 이후 시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친절행정을 시정운영의 핵심과제로 꼽으며 이를 추진해왔다

이를 위해 정 시장은 2018 익산시 친절행정 종합계획을 발표함에 이어, 이번에 이뤄지는 전 직원 친절교육은 본격적인 친절행정을 위한 신호탄이

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친절다짐 선서로 시작하는 이번 교육은 2018 익산시 친절행정 종합계획의 직원들의 전반적 숙지를 위한 친절행정교육의 보편성과 더불어 전문강사를 통해 친절한 익산시 사용설명서라는 주제로 강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특히 오전과 오후로 나뉘어져 하루에 전 직원 모두가 교육을 들을 수 있도록 한 것은 정현을 시장의 강력한 의지가 돋보이는 대목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익산=우병희 기자

익산시, 내년도 예산편성

예산편성 운영기준 설명회·세부지침 교육 시작

익산시가 지난 7일 2019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설명회 및 세부지침 교육을 시작으로 내년도 예산편성에 들어갔다

모현도서관에서 진행된 이번 설명회는 부서별 주무계장 및 예산담당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설명회 주요 내용은 2019년도 예산 운영 편성방향 및 주요 개정사항 등으로 예산운영의 책임성, 투명성, 건전성을 확보하고 원활한 예산업무 추진을 위한 지침을 전달하고자 마련됐다

한편, 익산시는 지난 7월 제21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에서 보고되었던 민선 7기 핵심 가치인 시민 중심의 시정에 초점을 맞추고 6개 분야별 시정 운영방향에 맞춰 각 분야별로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다

민선 7기 시정운영 계획의 주요사업

으로는 활력이 넘치는 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일자리 창출 우량기업 유치, 도시재생뉴딜사업, 4차 산업 혁명시대의 농정혁신과 선진화를 위한 농업보조금 지원, 농산물 최저 가격 보장 추진과 시민 중심 도시 조성을 위한 시민참여 예산 확대와 시민청원제도의 시행, 출산과 보육, 맞춤형 명품 교육 도시를 만들기 위한 다자녀 출산지원, 어린이집 무상보육, 노인 종합복지관 건립, 복합스포츠타운 건립 사업 등이다

또한 역사와 문화가 살아있는 관광도시와 안전하고 건강한 친환경 녹색 도시 조성에 필요한 백제 왕도의 정체성 확립과 관광벨트 조성 사업, 미세먼지와 악취 저감 사업, 푸른 도시 숲 조성 등이 포함됐다

/익산=우병희기자

익산시, 하반기 지방재정집행 추진

익산시가 자리 창출력 강화와 이월·불용액의 최소화 도모 등을 위해 하반기 재정집행 목표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현액인 1조 3,358억 원의 84.9%인 1조 1,330억 원으로 설정하고 지방재정집행을 적극 추진한다

한편, 익산시는 지난 1분기 재정집행 실적 시군 평가에서 '대상' 기관으로 선정되어 기관표창과 함께 인센티브 7천만 원을 지원받은 바 있다

/익산=우병희기자

군산시, 인명 구조·심폐소생술 교육 실시

군산시는 지난 7일 체육진흥과 소속 수영장 인건요원 및 직원(간호·매점근무자)을 대상으로 군산소방서 방호구조과 교육강사를 초청해 월명 실내수영장에서 인명구조 및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익사자 발생 시 응급 구조하는 방법을 배우고, 구급대원이 도착하기 전 심정지 환자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초기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성인·소아 심폐소생술 실습 및 자동제세동기 사용방법 등을 교육했다



한편 군산시는 수영장(월명·국민체육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안전요원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정기적으로 군산소방서와 연계하여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군산=김정훈 기자

군산시, 명절 연휴기간 환경오염신고 상황실 운영

군산시는 추석 연휴기간을 포함한 10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관리·감독 취약시기를 악용한 오염물질 불법배출이 우려됨에 따라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단속 및 특별감시활동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추석 연휴 기간을 3단계로 나눠 특별감시를 실시하고 환경기초시설, 폐수처리업체 등 환경오염 취약지역(시설)에 대해 홍보계도와 환경순찰, 단속, 기술지원 등을 병행할 계획이다

추석 연휴 전(9월 10일~9월 21일)에는 주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사전 계도 및 자율점검을 독려하는 협조문을 발송하고 특별감시반을 편성해 환경오염 취약 사업장을 중심

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추석 연휴 중(9월 22일~9월 28일)에는 수질오염사고에 대비해 환경오염행위 및 수질오염 상황실을 운영하고 새만금지방환경청, 전라북도 등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해 비상상황에 대해 신속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추석 연휴 후(9월 27일~10월 2일)에는 장기간 미가동으로 인한 정상 가동여부를 확인하고 재가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을 방문해 기술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환경오염 행위를 발견했을 경우 즉시 군산시 상황실(주간 ☎454-3404, 야간 ☎454-4222)로 신고하면 된다 /군산=김정훈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